종정 지허 스님, "종단 새 미래" 천명

태고종, 4월 28일 추대법회 봉행
취임법어에서 '부단한 정진' 당부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태고종이 4월 28일 서울 한국전통문화전승관 3층 법륜사에서 봉행한 제20세 종정 지허 스님의 추대법회에서 지허 스님이 주장자를 들어보이고 있다.

"태고종도의 수행과 확철대오의 종지를 철저히 믿고 행하는 종단이 되도록 자나깨나 다 같이 정진합시다. 이제부터 밝은 내일의 시작입니다."

태고종(총무원장 호명)은 4월 28일 서울 한국전통문화전승관 3층 법륜사에서 제20세 종정 지허 스님의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지허 스님은 취임법어를 통해 종도들의 화합과 부단한 정진을 당부하고, 이를 토대로 종단의 새 미래를 열어나갈 것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지허 스님은 "태고종은 한국불교 1500년 역사를 잇는 종단으로, 700여 년 전 고려말기에 태고종조께서 임제선종의 20세 적손으로 법맥을 이은 후 오늘에 이르렀다"며 "모든 종도들이 힘을 모아 종단의 안정과 태고종조의 가르침에 거스르지 않는다면 말세의 어둠 속에서도 세계불교의 횃불을 밝힐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대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원로의장 도광 스님, 호법원장 지현 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스님들과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지도자, 조현래 문체부 종무실장, 이원욱 국회정각회장, 주호영 국회정각회 명예회장 등 내외빈이 함께했다.

종정추대법회는 태고종 제2의 도약을 선언하는 법석이었다. 특히 지난 수년간 이어진 종단 내 혼란이 종식된 후 종단 안정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법의 상징인 종정의 공식 추대법석은 곧 종단 정상화를 대내외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봉행사에서 "육부대중과 내외 귀빈이 한자리에 모여 지허 종정 예하의 추대를 더욱 큰 기쁨으로 함께하는 것은 우리 종단이 수년에 걸친 내홍과 분규를 완전히 종식하고 화합과 안정 위에 한단계 더 전진하고 발전하는 새 시대를 열어가려는 우리 모두의 굳은 발원이 한마음으로 통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새 종정 예하를 모시고 시대와 종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 종단지표를 마련해 더욱 안정되고 화합하는 종단 운영과 발전을 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로의장 도광 스님의 추대사와 호법원장 지현 스님의 헌사에 이어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이 법좌에 오른 종정 스님에게 불자와 주장자를 봉정했으며, 모든 사부대중은 삼배로 예경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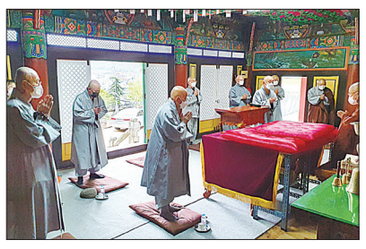
종정 지허 스님은 취임법어에서 "우리종단은 해방 이후 불교분규라는 불행을 겪은 뒤 모든 것을 잃고 빈 바닥에서 종단을 재정비 한 지 50년이라는 상처의 세월을 지닌 채 오늘에 이르렀다"며 "이제부터는 밝은 내일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태고조사가 석옥청공 선사에게 바쳤던 '태고암가'를 인용해 "태고종의 후손으로서 태고조사의 종지 종풍을 바로 세우고 종도들은 이를 되새겨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대법회에는 불교계 안팎의 내외빈이 참석해 축사를 통해 종정 취임을 축하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조현래 종무실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태고보우국사의 애국애민 사상을 계승한 태고종은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국난극복기원법회를 열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해 왔다"며 "선교를 겸수하신 스님께서 앞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큰 역할을 해 달라"고 기대를 전했다.

법화종 원로원, "종정 도선 스님 지지" 천명

4월 23일 의원 연명으로 공표
"종정 스님 적법성 · 위의 존중"
총무원장 서리 집행부도 인정
비대위엔 해산 · 해종 중단 촉구


원로의원 스님들이 4월 23일 열린 원로회의에서 종정 도선 스님에게 예를 갖추고 있다.

법화종 원로원 의원 스님들이 종정 도선 스님이 임명한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표했다. 반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성운)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종단체로 규정해 법화종 정상화 향방에 핵심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법화종 원로원은 4월 2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적법 정당한 과정을 통해 추대된 종정 예하의 위의를 존중하고 종정 스님이 임명한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의 집행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종헌 종법에 근거도 없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즉시 해산하고 이에 동조 · 참여한 종권승들은 해종행위를 일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화종은 지난 3월 법원이 법화종 총무원장 당선자 거암 스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한 이후, 수습을 위해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이 임명됐지만 전 집행부와 일부 종회의원이 이를 거부한 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좀처럼 정상화 가닥을 잡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이 서리 임명 직후 총무원 청사에서 업무집행 및 후속절차를 공지했지만, 전 집행부 측의 거부로 일체의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못했다.

종헌종법상 근거 없는 조직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권한 없이 '이중승적'을 이유로 종정 도선 스님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등 충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는 논란도 거세다. 비상대책위원장 성운 스님은 지난 4월 7일 종정 스님에 대해 '종정 사칭'을 이유로 제적을 통보했다.

이런 상황에서 원로원이 종정 스님의 적법성과 위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공표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는 시각이 많다. 원로원은 종법상 종단 최고의 자문기관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원로 스님들은 "지난 수개월 사이 2013년 종단을 파국으로 몰고 갔던 세력이 돌아왔고 종권승들과 야합해 총무원장으로 당선됐다. 이후 전과 문제와 선거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직무집행이 정지됐음에도 여전히 그 집행부는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앙종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의 본분도 저버린 채 해종세력과 결합해 비상대책위원회란 불법단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대표위원장을 맡아 총무원장 서리의 업무를 방해했고 종정 스님을 징계하는 어처구니 없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로원은 "혼란이 지속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종도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며 "총무원 청사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해종세력은 즉시 퇴거하라"고 요구했다.

종도들의 무관심이 종단을 지금의 상황으로 내몰았다는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원로의원 스님들은 "위선과 오만, 독단과 거짓에 능한 종권승들의 야합을 막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이 결국 참담한 현실을 불러왔다"며 "탐심으로 모인 해종세력의 세가 더욱 커지자 불의가 다수가 되고 정의가 의심받는 비상식을 목도하며 종단이 천길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참담함을 전했다.

한편 이날 입장문은 원로회의를 거쳐 최종 결의됐으며 원로의원 스님들의 연명으로 공표됐다. 원로의장 진파 스님은 원로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연명에는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지희 기자



KCRP는 4월 27일 남북출입사무소 북단에서 '판문점 선언 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4.27선언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KCRP, 판문점서 3주년 기념식
시민사회단체와 호소문 공동발표

7대 종교 지도자들이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판문점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남북 지도자들은 판문점 회담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조건 없이 만나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원행, 이하 KCRP)는 4월 27일 서해선 남북출입사무소북단 DMZ통문 앞에서 '판문점 선언 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됐으며, 4 · 27 판문점 선언의 실천 의지를 높이고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특히 이날 '판문점 선언 3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하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판문점 선언 3년을 맞는 우리의 현실은 너무도 창백하고 하노이 북미회담의 파탄에게만 짐 지울 수 없는 명백한 후퇴가 있었다"며 "다시 판문점에서 남 · 북 · 미 3자가 만났던 그 순간은 더 놀라운 일이었기에 그것을 만든 노력만큼 남북은 왜 좀 더 나아가지 못했는가, 반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다시 시작함에 있어 성찰을 새기고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며 "북은 북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각자가 자기 행위의 이유있음만을 설명하고자 할 때 전체를 지탱했던 공감은 조금씩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교계와 시민단체든은 이에 △남북 지도자가 초심으로 돌아가 조건 없이 만날 것 △대화분위기를 해하는 어떠한 언행도 자제할 것 △판문점 선언 및 9.19 공동선언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남북당국간 협의기구 구성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재개 △이 같은 노력에 대한 미국, 중국 등 관련 국가들의 전폭적 지지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KCRP 대표회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과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손진우 유교 성균관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 김희중 한국천주교 대주교, 이범창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 7대 종교 대표와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기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윤정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김경민 한국YMCA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직할교구, 승가 장학금 지원

5월 3일~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조계종 직할교구가 승가 인재 양성과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 온 장학금 지원 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

직할교구는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6회 승가장학금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승가 장학금은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 · 사미니를 대상으로 한다. 동화사, 범어사, 법주사, 불국사, 송광사, 수덕사, 쌍계사, 통도사, 해인사, 화엄사, 동학사, 봉녕사, 운문사, 청암사 등 승가대학과 기본선원, 중앙승가대, 동국대 재학승이면 신청 가능하다.

승가장학금 신청을 위한 서류는 신청서와 수학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은사스님 추천서와 교육기관장 추천서,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표, 승적증명서, 수계확인서,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이다.

직할교구는 청소년 인재 양성을 위한 선재장학금 지원자도 모집한다. 직할교구 사찰에서 신행활동을 하는 국내 중고등학생 가운데 예체능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5월 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직할교구 소속사찰에서 신행활동을 하는 예체능 전공(2년 이상)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재적사찰 주지스님의 추천을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02)2011-1931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일 정 2021년 9월 8일(수) ~ 10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 육 비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수업참여 오프라인(황룡원), 온라인(Zoom)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불교의 현대적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9월 8일, 수)	2일차 (9월 9일, 목)	3일차 (9월 10일, 금)
09:00~12:00		생활수행의 원리와 사례	마음과 과학 특강
14:00~17:00	불교상담과 마음치유	현대인을 위한 포교	
18:30~20:30	한마음 교육의 원리 '나로부터의 시작'	온택트 시대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1 안양시 시민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사업

제7기 행복한 부모되기
마음 치유와 자녀심리 이해

대상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자 하는 누구나(선착순 40명)
기간 2021년 5월 25일 ~ 2021년 7월 13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장소 한마음선원과학원 3층(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신청 및 문의 함께하는 진화 홈페이지 edu.hansi.org
전화 031-470-3198, 3200
매주 월요일 휴무
수강료 무료교육(안양시 지원금으로 교육진행)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1회	(5/25)	괜찮아(수용하기)
2회	(6/1)	다그치지 말아요(무의식 이해하기)
3회	(6/8)	평가하지 말아요(마음 자각하기)
4, 5회	(6/15)	쉼(관계의 통찰) & 걷기명상
6회	(6/22)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
7회	(6/29)	고맙습니다(부모 역할 자각)
8회	(7/6)	우리, 안아줘요(건강한 가족)
9, 10회	(7/13)	내 안의 꽃을 피워요(성찰과 비전)